

월요광장



**이승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단절의 시대 가정을 힐링하자

본 단위이며 뿌리인 가정에 적용하여 우리의 생활문화를 바꾸어 보자는 운동이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의 이혼 및 혼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혼인한 지 20년이 넘는 부부의 이혼이 26.4%로 가장 많았고, 황혼이혼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1년까지는 4년 이하 이혼(24.7%)이 가장 많았는데, 2012년에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해온 부부들의 이혼이 결혼 4년 이하를 앞질렀다. 혼인 지속 기간 30년 이상 이혼도 10년 전보다 2.4배나 증가했다.

2012년엔 혼인 건수도 감소했다. 2011년에는 32만 9100건이었는데 2012년에는 32만 7100건으로 2000건이 감소했다. 초혼 나이는 남자가 32.1세, 여자가 29.4세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0.2세, 0.3세 상승했다. 이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늦게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때가 되면 독립하여 가정을 이룰 젊은이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대세일지도 모르겠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0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부부+자녀 가구가 37%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 23.9%, 부부 가구 15.4% 순이었는데 2035년에는 1인 가구 34.3%, 부부 가구 22.7%, 부부+자녀 가구 20.3% 순으로 바뀔 거라고 한다. 나 홀로 밥 먹고, 나 홀로 잠자는 '나홀로 족'이 많아진다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고독사(孤獨死)도 사회문제가 될 게 뻔하다.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2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대부분 청소년기에 있을 자녀가 큰 충격을 받는다. 가족 간 사랑을 느끼며 가정에서 따뜻하게 자라야 할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한 순간에 안락한 보금자리를 잃는다. 당사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없을 것이다.

이런 통계를 보면 최근 우리나라 가정이 해체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자녀를 낳아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인류가 존속되도록 하는 기능이 우리나라 가정에서 벗어나고 있다. 공동체의 가치 기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차적인 교육을 담당하여 자신이 태어난 사회에 정신과 정서적으로 소속되도록 하는 사회적 기능도 거의 마비되었다.

최근 각종 통계수치가 말해주는 오늘날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을 보고 흥이거정운동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가정 붕괴 현상을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다. 가정을 힐링해 건강한 가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힐링 패밀리운동'이라 하여도 될 것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가정은 행복한가, 이대로 가도 좋은가.' 이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곳곳에서 가정 붕괴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 아이만 생각하는 배타적인 가족이 가족의 광배한 가운데 이혼율은 급증하고, 세대 간의 단절로 부모와 자녀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문화는 사라진 지 오래고, 그 단절의 틈새를 막아줄 새로운 가족문화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에 나는 일찍이 흥이거정운동을 펼쳐왔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흥이정신을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철학으로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자는 운동이다. 흥이는 흥이철학을 사회의 가장 기

본 단위로 뿌리인 가정에 적용하여 우리의 생활문화를 바꾸어 보자는 운동이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의 이혼 및 혼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혼인한 지 20년이 넘는 부부의 이혼이 26.4%로 가장 많았고, 황혼이혼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1년까지는 4년 이하 이혼(24.7%)이 가장 많았는데, 2012년에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해온 부부들의 이혼이 결혼 4년 이하를 앞질렀다. 혼인 지속 기간 30년 이상 이혼도 10년 전보다 2.4배나 증가했다.

2012년엔 혼인 건수도 감소했다. 2011년에는 32만 9100건이었는데 2012년에는 32만 7100건으로 2000건이 감소했다. 초혼 나이는 남자가 32.1세, 여자가 29.4세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0.2세, 0.3세 상승했다. 이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늦게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때가 되면 독립하여 가정을 이룰 젊은이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대세일지도 모르겠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0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부부+자녀 가구가 37%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 23.9%, 부부 가구 15.4% 순이었는데 2035년에는 1인 가구 34.3%, 부부 가구 22.7%, 부부+자녀 가구 20.3% 순으로 바뀔 거라고 한다. 나 홀로 밥 먹고, 나 홀로 잠자는 '나홀로 족'이 많아진다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고독사(孤獨死)도 사회문제가 될 게 뻔하다.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2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대부분 청소년기에 있을 자녀가 큰 충격을 받는다. 가족 간 사랑을 느끼며 가정에서 따뜻하게 자라야 할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한 순간에 안락한 보금자리를 잃는다. 당사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없을 것이다.

이런 통계를 보면 최근 우리나라 가정이 해체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자녀를 낳아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인류가 존속되도록 하는 기능이 우리나라 가정에서 벗어나고 있다. 공동체의 가치 기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차적인 교육을 담당하여 자신이 태어난 사회에 정신과 정서적으로 소속되도록 하는 사회적 기능도 거의 마비되었다.

최근 각종 통계수치가 말해주는 오늘날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을 보고 흥이거정운동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가정 붕괴 현상을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다. 가정을 힐링해 건강한 가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힐링 패밀리운동'이라 하여도 될 것이

이제는 가족이 건강을 유지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힐링 패밀리가 되려면 무엇보다 부모가 앞장서야 한다. 첫째, 아이들에게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자. 가정에서 아이의 스승이 되자는 것이다. 아이에게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높은 지위에 앉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편하게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자.

둘째로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시험 점수보다도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딸 흘리는 노동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을 길러 주어야 한다.

셋째로 부모가 먼저 흥이정신을 실천하자. 남을 지배하거나 군림함으로써 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위대해지고 존엄해지는 것임을 부모가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

힐링 패밀리는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성장을 위해 기여하고, 흥이의 문화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운동이다. 나아가 지역사회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운동이다. 세상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힐링 패밀리운동이다. 많은 가정이 운동에 참여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바란다.

법조칼럼

불운한 사람들



**김태권**  
광주지법 파산3단독 판사

이 갈수록 돈 쓸 곳은 많은데 적은 월급으로 는 감당하기 어렵지요. 예상치 못한 큰돈이 들어가는 일은 꼭 있습니다. 낭비해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경제상황 때문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빚을 못 갚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것이 파산과 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파산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빚을 탕감하는 것이고, 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감당해주는 대신, 나머지는 수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나눠 갚는 것입니다. 파산과 회생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소신했던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제법 풍찬노숙하며 대학졸업하고 사시에 합격했다고 자부했었지만, 파산과 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온실 속의 화초였습니다.

그때도 저는 부모님이 계셨고, 도와주는 친척도 있었습니다. 항상 굶지 않을 정도의 돈은 있었고, 어둡고 녹록한 지하방이라도 잘 곳이 있었지요.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사람도, 사기를 치려는 사람도,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도 없었고요. 제가 부양하지 않아도 가족은 생활할 수 있었고, 도박과 술에 빠져 자식 등록금을 축내는 아버지도 없었지요. 크게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지도 않아 큰돈이 들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파산과 회

생 사건에는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 순간의 잘못으로 술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술집 주인은 갚을 수 없는 큰돈을 빌려주며 도망치려는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수렁에서 벗어나,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엄마로 성실히 살고 있습니다. 근대 술집 주인은 그 빚을 갚으라고 지금도 그녀를 괴롭히고 있고, 이런 기가 막힌 사정을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하지 못한 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녀가 신청서에 썼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무엇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지난날을 후회하지 않고 지낸 적이 없습니다. 큰 잘못을 했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지금 외서는 너무 큰 욕심이 패배했습니다." 그녀에게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파산과 회생입니다.

일각에서는 파산과 회생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빚을 탕감해주면 누가 빚을 갚겠느냐는 것이지요. 어려운 말로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기가 철학자 플라톤마저도 정의는 빌린 돈을 갚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냥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릴 법도 합니다. 제 소박한 생각에 파산과 회

생은 우리 마음속의 사랑과 연민은 아닐는지요. 길을 가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주머니를 털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텔레비전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을 보면, 전화를 걸어 후원금을 기부하고, 선물을 보내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파산과 회생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영어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unlucky와 loser가 있다고 합니다. 둘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 속뜻은 매우 다릅니다. unlucky가 단지 운이 없었다는 뜻인 반면, loser는 실패자, 낙오자라는 의미지요. 전자가 따뜻한 동정과 공감의 시선이라면, 후자는 차갑고 엄정한 비판의 눈조리입니다. 저는 법원에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loser가 아니라, unlucky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지만 단지 불운한 사람들이지요.

법원은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 정의는 대부분, 누구를 징역 몇 년에 처하고, 누구에게 돈을 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차갑고 엄정하지요. 하지만 파산과 회생은 unlucky 즉, 성실했지만 불운했던 사람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저는 그것이 따뜻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따뜻한 정의를 위해서 파산부의 판사들은 오늘도 기꺼이 밤을 밝히며 일하고 있습니다.

기고

'실력 광주'의 전통을 다시 찾자



**하영철**  
미래로 학교 도우미 대표

할 해 후부터 그 전통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지적 역량은 세계에서 평균 2위이나, 흥미도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하위에 속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은 전인교육의 차원인 인간의 총체적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고, 정시보다 수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능보다 수시 대비 학력 증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교육감의 주장에 동의는 한다.

그러나 만 15세, 고교 1년생 약 40만 명이 3년마다 보는 PISA(국제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계속 세계 2위를 해왔으나 흥미도에서는 최하위라는 것은 생각할수록 말이다. 재미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다. 학생이 해야 할 일은 공부하기에 의무적으로 타에 의해 학습하는 것이 학교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문제는 학생들의 지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법에서 흥미도나 참여도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적 목적인 지, 덕, 체, 기를 기르는 인간의 총체적 능력을 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적 역량이 우선이고, 사회적 상호

작용 역량은 지적 역량을 기르는 학습 방법에서 찾아야 한다.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고, 다양한 지식을 기억하고 있는 자가 더 창의적이고 융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수수도 관심을 두어야 하지만 정시의 중요성을 생각했으면 한다.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수시는 수능 성적이 약간 뒤질 때 생각해보는 차선책임을 생각하자.

우수 인재를 기르는 것이 우리 광주의 살 길임을 생각하자. 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실, 상상, 복지, 평등, 인권 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경쟁이 없을 수 없다. interactive 학습, 상호 학습, 토론 학습에서도 서로간의 경쟁은 존재하는 것이 교실 수업의 현실인 것이다.

세계 학력 1위인 핀란드 교육도 경쟁은 있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있음을 생각하

자. 중학교 성적으로 일반계 고교와 직업계 고교로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 성적으로 우수 대학에 진학하는 핀란드 교육 체제에는 경쟁이 있는 것이다.

'실력 광주'의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현 교육감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의 교육관과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교육이론에 입각한 교육 설계와 추진이 요구된다. 교육감의 생각이, 특수 교육 집단의 생각이 우리 광주 교육을 끌고 갈 때 다수의 말을 없는 학부모의 가슴은 멍들어가고 있음을 생각하자.

교육의 목표를 지가 먼저냐, 덕이 먼저냐, 체가 먼저냐를 두고 논해 왔으나, 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덕과 체를 찾아 학습할 때 좀 더 뜻있는 교육의 성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 논술도, 면접도, 토론도, 사회적 상호작용도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자.

"광주 학생들의 학력이 높은 이유를 강의 도중 교장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몇 년 전 충남교육연구원 중등 교장 직무 연구 때 담당 연구사의 요청이었다. 부산 교육감에 당선된 이전 교육감이 '실력 광주'의 비결을 알고 싶다면 나와 독대를 청해 그 분과 많은 이야기 나눈 적도 있다.

우리 광주 학생들의 실력은 타 시·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계속 전국 최상위를 해왔다. '실력 광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우리 광주를 찾아왔던 시절도 있었다. 전국 어디에 가나 '실력 광주'라는 말을 들을 때 광주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직원으로서 뿌듯한 긍지를 갖게 되었고, 정말 신나게 강의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 교육감이 광주 교육을 통

社說

기아차노조 62만대 증산 차질 더는 안된다

기아차 광주공장과 협력업체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지난 23일 광주공장 대강당에서 '제2차 증산 결의대회'를 갖고 62만대 증산 프로젝트와 3년째 지지부진한 3공장 붕괴 트러블 증산 일정의 조속한 추진을 노조 측에 촉구했다. 지난 3월 1차 대회에 이어 열린 이날 결의대회는 노사협의가 4개월째 표류하면서 증산은 물론 생산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사는 사내 하청 조합원의 분신사태로 중단됐다가 지난 8일 협의가 진행됐으나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여기에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지부 대의원과도 일정으로 다음달 초까지의 협상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증산 프로젝트가 물거품 되면서 광주공장은 당초 계획과 비교, 월 평균 8000여 대가 줄어들고 있다. 9만 여대에 이르는 국내의 주문 적체 해소에도 비상이 켜진데다 노조와 인력문제 협의도 지연돼 지난 2월 채용공고 이후 누 달째

합격자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협력업체와 영업점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증산 계획에 맞춰 설비 증설 등을 포함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지만 증산 체제 전환이 늦어지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지현상 심화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내수판매도 갈수록 힘들어 생산량이 전년 1분기 대비 7.7%나 줄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다. 3000여 원을 들여 증산시설을 갖추고도, 4개월째 설비를 늘리고 있다는 건 기아차와 협력업체도 문제지만 크개는 지역경제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노조는 오늘날의 광주공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회사 측과 협상을 속히 재개해 증산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차질을 준다면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다.

유치원 홈페이지 무방비, 범행 악용 부추기나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빼내 SNS에 음란물을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떠도는 해킹 수법을 썼다고 한다. 보안에 각별해야 할 어린이교육시설의 홈페이지가 간단한 조작으로 뚫렸다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10대인 박모군은 지난 4월 광주시 서구 S유치원 홈페이지를 해킹, 여교사와 학부모 등 3명의 메일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이들의 스마트폰 SNS 등에 음란물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은 또 SNS 상에서 학부모의 딸 행세를 하며 다른 친척 동생(10)에게 접근, 음란 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다시 SNS에 올렸다는 것이다.

박군이 사용한 방법은 10년 전부터 소개된 흔한 해킹 수법으로 유튜브에 접속하면 관련 동영상이 적지 않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한다. 별도 해킹 프

그럼 없이 특수문자를 조합해 간단한 입력하기만 하면 몇 초 안에 홈페이지에 접속, 마음대로 개인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

대부분의 유치원은 보안에 대한 교육은 고사하고, 비용 등을 이유로 홈페이지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어 인터넷 범죄에 무방비상태다. 자칫 어린이들의 신상정보가 새나가는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보안 의식은 제로에 가깝다.

이런 실정이라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는가. 인터넷 보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유치원과 보육 시설, 학원 등의 인터넷 보안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자나 교사 등의 보안교육도 서둘러야 한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의 보안 및 안전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 또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얼마 전 광주 양림동 '다형다방'에 잠시 앉았다 나왔다. 건물 이층에 자리잡은 찻집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찻집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고마하다.

무인카페로 운영되는 터라 누구든 자유롭게 와서 차 한잔 직접 타 마시고 가면 된다. 눈에 띄었던 건 범명목대신타자에 놓인 '원고지'. 이곳을 다녀간 단상을 간단히 써놓는 이들도 있고, 시

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며칠 전 양림동 '오렌 기념각'에서 '양림의 소리를 듣다' 프로젝트가 열렸다. 광주시 유형문화재 26호인 오렌 기념각은 올해 딱 100살이 된 건물로 광주 최초의 서양음악학 교였던 의미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양림의 소리를 듣다'는 양림동의 근대문화유산에 예술의 향기를 입히는 프

로그램으로, 이날은 변사극 '검사와 여선생'이 공연됐다. 앞으로 우월순 선교사 사백, 이상우 가족, 양림동 미술관 등에서 행사가 진행되며 가을에는 남구침이 주최하는 '굿모닝 양림'도 대기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의 젊은 기획자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젊은 이야기와 인물을 품고 있는 양림동 곳곳이 이들에 의해 어떤 공간으로 변모해 시민들에게 말을 건넨지 기대가 크다.

올해 하반기에는 양림동을 천천히 걸어볼까. 이상우 가족, 우월순 사백에서 열리는 공연에도 참여해 보자.

/김미은 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양림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가)1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제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서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매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지털실 2200-536 프로젝트팀 2200-55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F A X> 222-8005 <F A X> 222-0195 <F A X> 227-9600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p style="font-weight: bold;">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